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갈비라도 구워 봅시다

뉴스에 툭 하면 '소고기 원산지 속인 일당 검거' 이런 기사가 뜬다. 원산지를 속이면 이익이 있다는 뜻이다. 원산지를 위조한다는 건 수입을 국산으로 속인다는 의미다. 국산이 더 고평가 받기 때문이다. 부위마다 다르지만 최소 두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소·돼지·닭고기가 모두 그렇다. 국내산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국산은 귀하고 비싸다. 특히 갈비는.

수입산이 최고로 대접받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는 고기도 수입산을 더 쳐 주었다. 한우보다 미군부대에서 나온 고기가 더 좋다고 생각했다. 미군부대가 있는 주요 도시에는 도깨비시장이 있었고, 부대에서 유출된 고기를 몰래 팔았다. 엘에이(LA)갈비가 히트를 친 것도 이런 도깨비시장 유출품에서 비롯됐다. 미국에선 갈비가 그다지 고가 부위가 아닌데다, 갈비가 원래 질기므로 뼈와 고기를 90도 각도로 얇게 썰어서 포갈비처럼 구워 먹도록 한 게 엘에이갈비다. 지금도 한우는 엘에이갈비로 가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중저가 수입육 갈비를 처리할 때만 이런 방법을 쓴다.

엘에이갈비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한국에서 시작하여 오히려 미국 엘에이로 역수출돼 각광을 받았다는 설도 있다. 현지 교민이 상대적으로 싼 갈비를 엘에이식으로 썰어서 한국식 양념구이를 만들었더니 아주 맛이 좋아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다. 이때 엘에이를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들이 기념(?)으로 엘에이갈비 냉동품을 구입, 한국으로 가져오던 시기가 있었다. (광우병이나 돼지구제역 파동 이후 축산물 휴대가 엄격하게 단속되고 있어서 요즘은 절대 불가능하다.) 물론 미국에서 교민에 의해 시작되어 한국으로 도입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듯 갈비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선호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면서 원산지를 속이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 외국에서는 갈비가 그다지 비싼 부위가 아니다. 이는 구이용으로 보지 않는 관습 때문이다. 갈비는 실제로 상당히 질긴 부위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갈비에 '다이아몬드 칼집'을 넣는다거나, 채끝 같은 부위를 갈빗대에 붙여서 파는 것(합법이다)도 다 이 때문이다. 보통 고기는 연해야 비싸다. 그러나 갈비는 질긴데 비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율배반이 성립되는 부위다. 갈비의 대명사가 '암소갈비'가 된 것도 암소가 연하기 때문이다.

갈비는 그냥 '갈비'라고 부르지만 부위마다 아주 복잡한 근육이 얽혀 있다. 그래서 한 덩어리의 갈비가 세분되어 구이용, 찜용, 갈비탕용으로 나뉜다. 갈비뼈 사이의 살을 늑간살 혹은 갈빗살이라고 부르는데, 한우의 이 부위는 거의 금값에 가깝다. 등심이 흔히 제일 비싸다고 알려져 있지만 갈빗살이 더 비싸다는 건 다들 모르는 사실이다.

물론 수입 갈빗살은 싼 편이다. 30여 년 전, 수입 갈빗살(늑간살)을 도입하여 구이용으로 팔던 서울 강남의 허름한 고깃집이 큰돈을 벌어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갈비는 언제든 벼락부자를 만들어 주는 유용한 부위였던 것이다. 지금도 여전해서, 갈비 가공을 잘하는 기술자는 우대받는다. 게다가 뼈에 다른 살을 붙이는 기술 즉 갈비를 잘 바르는 기술에는 프리미엄이 붙는다.

한국에서 갈비 붐이 인 것은 60년대라고 한다. 무슨 연유인지 선물용으로 각광받으면서 명절 수요가 급증했고, 평소에도 고급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아졌다. '명절 갈비짝 뇌물 급증' '갈비 사재기 단속' 등의 기사가 60년대부터 보인다. 뇌물용 갈비 수요가 커져서 갈비가 너무 비싸졌다고 개탄하는 신문 기사가 등장하는 게 그 시기였다. '갈비짝 선물'이라는 말은 뭔가 은밀한 거래를 상징하기도 했다.

갈비는 적어도 조선 말이나 일제강점기 무렵부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다지 비싸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시절의 작가 김화진 선생은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다. '가리'는 갈비의 옛말이다. "1939년 종로 낙원동에 평양냉면집이 하나 생기더니 가리구이를 팔면서 그것을 갈비라고 일컫기 시작했다. (중략) 풍로를 피우고 자배기 가득 가리 잰 것을 가지고 와서 구웠다. 하나에 5전으로 아주 쌌다."('한국의 풍토와 인물', 을유문화사, 1973)

소갈비는 수입이어도 비싼 편이니 돼지갈비라도 구워 보면 어떨까 싶다. 닭갈비도 있는데 이건 갈비라고 부르기는 모호하다. 하기야 고등어구이를 '고갈비'라고 이미 70년대에 학사주점에서 명명했던 역사가 있으니 이거야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갈비를 좋아했던 증거 아닐까.

〈음식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치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빈나
광주·전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전남대치과병원 교수)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광주·전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최근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장애인 구강 건강 증진을 통한 행복한 삶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광주·전남 지역의 유일한 장애인 치과 치료기관으로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보건소와 연계한 예방 진료 사업과 구강 진료 및 보건 담당자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또한 매월 두 차례 토요일에 장애인 구강진료 버스를 이용해 의료 소외 계층 및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해 스케일링, 고령자의 의치 세척, 유치 발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칫솔질 교육 및 의치 관리 등의 구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 내 많은 장애인 시설의 환영을 받았던 장애인 순회 치과 진료가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일시 중단되면서 아쉬움을 전한 시설 관계자들이 많았다.

전남대학교 치과병원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광주·전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간단한 충치에 대한 치료부터 보존, 치주, 소아치과, 구강외과, 임플란트 수술까지 다양한 범위의 진료가 가능하다. 이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각 과 전문의들과 전공의들이 각 과별 진료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유기적인 협진 체계를 통해 장애인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전신 마취를 통한 치과 치료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진료에 대한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치과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경우에는 흉부 방사선 사진 검사,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와 같은 마취 전 검사 및 치과 마취과 교수가 진행하는 전신 마취를 통해 고난이도 치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장애인 치과 진료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경증 장애인 진료에 국한되어 중증 장애인 이상의 전문 치과 진료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 있었다. 하지만 '광주·전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설립된 이후, 센터가 광주·전남 지역 중증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면서 장애인 치과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전신 마취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담 마취 전문의와 진료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장애인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어서 혈액과 소변 검사,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우선 실시한 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 2020년에는 무사고 장애인 전신 마취 증례 1000건을 달성했다.

일반적으로 중증 장애인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많은 치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행동 조절이 용이하지 않아 진료가 어려운 탓에 전신 마취를 한 후 치료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전신 마취 치료시에는 가능한 한 여러 개의 치아를 치료한다. 치과 치료를 받았더라도 중증 장애인들은 일상적인 구강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내원해 구강 검진, 불소 도포, 전문가 칫솔질을 통해 치료 후 구강 관리를 이어 나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불량하면 2~3개월 간격의 정기 검진이 필요하며, 상태가 좋은 환자라도 최소 6개월 간격의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

센터는 지난 2011년 개소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장애인 환자들을 위해 전용 출입구, 전용 화장실 등의 편의 시설을 구축해 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장애인 진료 분야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전문 의료진이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강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려는 노력을 지금 이 순간도 이어가고 있다.

기 고

지속 가능한 GGM을 위하여

양승학
호남대 AI융합대학
전기공학과 교수

광주시민의 염원이자 국가적으로도 처음 시도해 보는 전국 첫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의 실증이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빛그린 산업단지에서 시작된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공장 건설과 시운전을 마치고 시험 생산에 돌입한 것이다. 자동차 위탁생산 전문업체인 GGM은 노사의 참여 속에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삐걱거릴 수도 있다. 따라서 노사 상생의 새로운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양측의 많은 양보와 타협이 요구된다.

GGM에서 생산하기로 한 소형 SUV(스포츠형 다목적 차량) 시장은 최근 가성비를 넘어 소비자의 '가심비'까지 충족시키는 수준까지 도달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형 SUV 모델이 9종 정도이고, GGM이 9월부터 생산할 코드명 AX1이 시장 경쟁에 합세한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GGM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GGM의 성공은 생산 제품의 품질에 달려 있으므로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역량과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GGM의 품질 관리에 참여하는 행위가 하도급 위반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체계적인 품질 관리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GGM의 미래를 담보해 가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GGM 사내 대학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구성원의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GGM의 협력업체들이 지역 내에서 견고하게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해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자동차 협력업체들이 동반 성장을 이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도록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의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많은 경력자들이 GGM으로 유입되는 것을 보면 경력자들이 빠져나간 중소업체들은 인력 공백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염려가 된다. 이를 고려하면 GGM의 공급망을 지역에서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노사 상생의 문제이다. 지역산업 육성을 추진하다 보면 지역에서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역량 있는 역외 기업이나 핵심적인 앵커 기업을 유치해 지역 기업과 연계를 하고 동반 성장을 꾀하는 데 문제는 기업 유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지역 기업마저 서울 인근으로 이전하는 요인이 되는 우수 인력 수급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의 강성 이미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노사 합의로 어렵게 출발하는 GGM은 노사 상생의 기업 문화가 하루빨리 토착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광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각되고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광주시 11대 주력산업이 가시적인 발전을 이뤄내기를 기원해 본다.

청년 대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염원 속에서 출발한 GGM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8개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지역 상생 일자리사업의 우수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 오스카에 빛나는 어느 여배우의 '모든 게 처음'이라는 말과 같이 GGM의 가는 길도 처음이지만 쇠퇴해 가는 지역 경제를 다시 활기차게 끌어올리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마음 모아 기원한다.

社 說

5·18 계엄군 피해 조사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그동안 5·18 피해 조사는 항쟁에 참가한 민간인 등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군경에 대한 대대적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엊그제 제35차 전원위원회에서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 피해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조사 대상은 1980년 당시 계엄군으로 활동한 2만여 명의 장교·사병과 2700여 명의 경찰 전부다. 조사위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국방부·보훈처·경찰청 등의 국가기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군과 경찰의 피해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법은 이와 더불어 발포 경위와 민간인 학살 등 11개 항목을 진상 규명 범위로 지정하고 있다.

조사위는 그동안 계엄군 장교·사병과 경찰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신군부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 이들의 피해 상황도 종합적으로 다뤄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5·18 당시 전차 동원 지시를 거부했던 고 이구호 전 육군기갑학교장이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전 전남도경찰국장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5·18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살상을 저지른 병사들 가운데 죄의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들 또한 피해자인 셈이니 이번 조사는 당연한 일이며 그동안 계엄군의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국민 통합의 의미도 담겨 있다.

더불어 신군부에 저항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군경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조사 과정에서 5·18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 양심 고백과 증언들이 이어지기를 고대한다.

세계 에너지산업 메카 한전공대 첫 삽 떴다

정부와 지자체 및 한국전력이 투자하는 세계 유일의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일명 한전공대)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난 1일 캠퍼스 착공식을 갖고 세계 에너지산업의 메카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한전공대 설립안'이 채택된 이후 4년 만이다.

'에너지의 미래를 품다'라는 주제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대학부지에서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승일 한전 사장,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장 및 지자체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 총리는 "에너지공대와 함께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가 에너지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도 환영사에서 "에너지 신소재 기술 분야 등의 혁신을 주도할 인력 양성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과 함께 한전공대는 교사 건립, 교수 채용, 학생 모집 일정까지 확정되면서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학교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학교 부지를 제공한 부영 측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약속한 개발이익 환수 조치는 물론 과도한 개발이익을 거둬들이는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도 한전공대와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 지역에 소재한 대학인 만큼 인재 양성과 연구기반을 구축해 대학의 성과가 지역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전공대 설립 목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감안해 오는 2023년 신입생 모집 요강부터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와 아이들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잊지 못할 공연으로 기억될 듯하다. 그동안 '광주 5월'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들이 많았던 데 비해, 이 연극은 '5월'을 지움으로써 더 많은 광주의 이야기를 건넨 무대였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의 독특한 공간에서, 움직이는 객석 등을 활용해 관객을 작품 깊숙이 끌고 들어가는 이 연극을 매년 더 많은 사람이 관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이 끝난 뒤 작품 팸플릿을 읽으면서 울컥하기는 또 처음이었다. 연출가·극작가·배우와 아시아문화원 스탭들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작품을 떠올릴 때면 나는 또 하나의 장면을 함께 기억할 것 같다. 충남 아산 거산초등학교 6학년생들을 공연장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다. 멀리 충남에서 초등학생들이, 그것도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오월'을 공부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고마웠다. 한데 이 아이들은 후배들인 5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사용할 5·18광주민주화운동 교재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시작된 이날 광주 현장 학습은 5·18기념재단 방문, 연극 관람, 전일빌딩 245 탐방, 양동시장 방문 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만남을 통해 5·18 41주년 주제 '오월,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맞추다'를 다시 떠올려 봤다. 학생들을 인솔한 선생님은 "아이들이 광주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교재를 만들며 좀 더 길게 더 자주 광주를 이야기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선배들이 제작한 '오월 교재'를 받아든 5학년 아이들은 거기에 또 자신들의 오월 이야기를 붙여 후배들에게 전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오월이 일상으로 스며들고 생생하게 살아 숨 쉬면 좋겠다.

선생님에게 전해 주기 위해 아이들 기사가 실린 신문을 챙기면서, 우편으로 함께 보낼 기념품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부탁했다. 기록관 직원은 또 "아이들과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며 "이게 바로 5·18 전국화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지 등 기념품을 하나라도 더 챙겨 주려 했는데 그러한 직원의 마음이 곧 광주의 마음이지 않을까. "거산초등학교 친구들과 선생님, 학부모님, 고맙습니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